

aT, 멕시코 ‘한류열풍’·中 ‘마라톤대회’ 통해 K-푸드 알린다

aT, 멕시코 ‘2026 K-전시’ 참가
K-드라마 속 수산시장 포차 마련
김, 굴, 해조류 등 주요 수출 품목

中 ‘타이위안 전국 마라톤대회’서
K-푸드 소비자 체험 행사 진행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멕시코를 찾아 K-수산식품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시식행사를 가졌다. 또 중국에서 개최된 유력 마라톤대회 출발지에서는 K-푸드 전용 홍보관을 운영했다.

aT는 9월 24~27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2026 K-전시: K-스타일’에 관한 모든 것’ 행사에 참가해, 방문객 대상으로 한국산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내보였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10~29세 인구가 총인구의 33%를 차지하는 만큼 젊은 소비층이 두터운 나라다. 특히 K-드라마와 K-팝 등 문화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한류 요충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6개 부처와 6개 기관이 참여했다. aT의 경우, K-드라마에 나오는 수산시장 포차마치를 연상케 하는 공간을 꾸렸다. 이 중 현지 식문화를 접목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K-전시 행사장에 조성된 K-수산식품 체험관.

한,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aT는 과카몰리와 참치 등 한국 수산식품을 토핑으로 사용해 직접 K-타코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 글로벌 인기 품목인 김, 게맛살, 미역을 활용한 요리·시식행사도 열었다. 배우 류수영의 쿡킹쇼도 현장 열기를 더했다. 류 씨는 중남미 대표 해산물 요리인 세비체와 유사한 매력을 지닌 한국식 납치물회를 소개했다.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시장 내 주요 수출 품목은 김과 굴, 해조류, 어묵 등이

다. 최근에는 현지의 비건·웰빙 추이와 맞물려 조미김 스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홍문표 aT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 수산식품에 관한 관심과 호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 뷰티, 푸드를 융합한 다부처 협업을 지속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K-수산식품의 수출 영토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aT는 또 지난 27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



중국 타이위안 마라톤대회 출발지에 설치된 K-푸드 체험관.

/aT

안시에서 열린 ‘2026 중국 타이위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K-푸드 소비자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 대회는 매년 가을 개최되어 온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스포츠행사다. 세계육상연맹 ‘골드라벨’과 중국육상협회 ‘금메달’ 등급을 모두 획득한 대회이기도 하다. 작년에만 선수 약 4만 명이 참가했다. 2010~2025년 기간 누적 참가자 수가 약 60만 명에 달한다.

aT는 대회 출발지인 우이광장에 K-푸드 전용 홍보관을 설치했다. 마라톤 참가

자 및 현지 시민에게 홍삼, 간편식, 이너뷰티식품, 라면, 과자 등을 선보였다. 라면·떡볶이 등 한국 대표 먹거리 시식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또 이벤트플랫폼을 비롯해 즉석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부스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체험은 온라인 홍보와 구매로 이어졌다. 중국 주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연계한 인증 이벤트와 스포츠 인플루언서 홍보를 통해 K-푸드 체험 현장을 온라인으로 확산한 것.

대회 공식 홍보채널을 활용한 K-푸드 브랜드 노출도 늘렸다. 마라톤 메인무대와 코스 중간 광고판 등에 K-푸드 로고를 집중 노출하고, 대회 기자회견장에도 로고를 선보여 K-푸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올해 8월까지 한국산 농림축산식품의 중국시장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늘어난 10억8556만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28.1% ↑) ▲과자류(1.3% ↑) ▲조제분유(5.8% ↑)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부산항만공사, 동남아 항만·물류 연결 강화

항만·물류 중심지 싱가포르 지점 개소
싱가포르해사항만청 등과 교류 발전
해외사업 발굴·부산항 마케팅 확대

부산항만공사(BPA)가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현지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파크로열컬렉션 마리나베이에서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지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아세안(ASEAN) 시장 성장에 대한 대응이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인도네시아에 있던 동남아대표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지점을 설립한 것이다.

이 나라는 세계적인 환적 거점이자 글로벌 선사와 물류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밀집한 대표적인 해운·항만·물류 중심지다. 공사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현지 해사항만청(MPA)과 PSA 등 주요기관,



(왼쪽부터) Chris Robblee Vopak 회장, 최영순 HMM 동남아·오세아니아 권역장, 김철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김준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지점 개소식에서 리본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선사·물류기업과 상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사업 발굴 및 부산항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해외사업을 지원한다. 또 아세안 지역에서 신규 항만·물류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선사·화주를 대상으로 부산항의 신규 물동량 창출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개소식에는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준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 탄호순 싱가포르해사항만청 부청장, 조나단 골드너 APM 터미널 아시아·중동지역 CEO, 림 친 추안 PSA 동북아 CEO, 황주섭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의 선사·항만·물류기업 관계자 1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국 댐에 500MW 수상태양광 대폭 확충

수자원공사, ‘교차송전’ 방식 도입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댐 10여 곳에 총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신규 송전망을 짓지 않고 기존 수력발전 송전 선로를 함께 쓰는 ‘교차송전’ 방식을 새로 도입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소양강댐에 95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다목적댐 등 10여 곳으로 대상을 넓혀 총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자원공사는 특히 소양강댐을 비롯해 충주·안동·대청·주암댐 등 5곳에 건설될 약 4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에 교차송전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차송전은 일조량이 풍부한 낮 시간에는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내고,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등 일조량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수력발전 전력을 송전



수상태양광.

/유토이미지

선에 실어 보내는 방식이다. 추가 송전망 건설 없이 기존 전력계통을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송전설비 확충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주민 간 사회적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함께 나누는 상생 모델도 도입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육상풍력 발전사업 ‘1년 풍황 실측의무’ 폐지

기후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재현바람장 분석자료 제출로 대체

10월 1일부터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1년 이상 직접 바람을 측정해 제출해야 했던 실측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사업 초기 규제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풍력발전 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개정 고시에 따라 사업자는 1년 이상 풍황계측기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풍황자료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AI와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한반도 바람 분석 데이터다.

이를 통해 ‘사업지 선정→계측기 설치→1년 계측→자료 제출→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던 기존 5단계 절차가 ‘사업지 선정→기상청 자료 확인→허가 신청’의 3단계로 축소된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판단기준도 정비됐다.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 이내 지역을 유효 지역으로 설정하되, 중복 신청 시 허가 심사기준과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기차 자동 충전·결제, 공공 호환성 검증

기후부, 오늘 기술 시연회 열어

앞으로 전기차 이용자는 충전기카드를 찾거나 스마트폰 앱을 켜지 않아도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충전과 결제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된다. 제조사와 충전사업자가 달라도 호환되는 공공 인증 기반의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가 본격적인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본원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전기자동차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PnC·Plug and Charge)’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nC는 차량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기가 차량 내 저장된 암호화 인증서를 통해 차량을 자동 인식하고, 인증부터 충전·결제까지 일괄 처리하는 국제표준

기반 충전 기술이다. 최초 1회 회원 가입과 결제수단 등록, 차량 인증서 설치 과정만 거치면 이후부터는 실물 카드나 앱 인증 없이 곧바로 충전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검증하는 기술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 인증체계’를 적용해, 차량 제조사나 충전기 운영사가 서로 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기후부 보유 전기차를 비롯해 현대차 GV90, 기아 EV9, KG M 무쏘 EV, 메르세데스-벤츠 CLA, 테슬라 모델Y, BMW iX3 등 국내의 주요 전기차 6종을 채비·이브이시스-에스케이 시그넷의 공공급속충전기 3종에 차례로 연결해, 인증부터 충전, 결제 완료 문자 수신까지 전 과정이 차량 제작사와 관계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세종=한용수 기자